

무주 지역화폐 앱, ‘착’으로 바뀐다

운영 대행사 한국조폐공사로 변경… 데이터 이관 작업으로 9월 1~10일 운영 중단

무주군 지역화폐 운영 플랫폼이 기존 ‘고향사랑페이’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착(Chak)’ 앱으로 전환된다. 무주군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를 한국조폐공사로 변경하고 지역화폐 앱을 ‘착(Chak)’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데이터 이관 작업이 진행되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 오후 12시 59분까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이 기간에는 지류 상품권 구매와 카드 충전 및 결제, 가맹점의 상품권 환전 등이 모두 제한된다.

무주사랑상품권 이용은 9월 10일 오후 1시부터 재개된다.

이용자는 기존 ‘고향사랑페이’ 앱 대신 ‘착(Chak)’ 앱을 새로 설치하고 회원등록 및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무주사랑카드는 ‘착’ 앱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보유 잔액이 자동으로 이관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일부 카



무주군 지역화폐 운영 플랫폼이 기존 ‘고향사랑페이’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착(Chak)’ 앱으로 전환된다.

드는 기존 잔액을 모두 사용한 뒤 지역 내 농협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신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무주군은 플랫폼 전환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지역 내 공공기관과 시장, 경로당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기존 고향사랑페이 앱과 무주군청 누리집,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앱 전환과 이용 중단 기간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전북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진안군이 지난 11일 전주 왕의지빌에서 열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1위)’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합리화 활동을 통해 주민 불편 및 민생애로를 해소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와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고, 도내 시군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7건이 열린 경합을 벌였다.

이날 진안군은 ‘수변구역 해제를 통한 규제합리화로 지역의 숨통을 뚫다 - 환경 보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비례적 상생 모델 정립’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심사위원단과 참가자들로부터 최고점을 받았다.

이번 대상 수상으로 진안군은 오는 9월부터 진행되는 ‘행정안전부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진안군의 이번 수상은 23년 동안 중점 규제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헌법상 재산권을 회복하고, 과학적 데이터



및 행정법상 법리를 제시하여 중앙부처의 승인을 이끌어낸 모범적 행정 성과라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높게 평가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1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장수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장수군 인구정책을 이끌어갈 중장기 대응전략과 세부 실행과제를 최종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정우 장수부군수를 비롯해 류지봉 행정복지국장, 실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용역 수행기관인 즐거운도시



연구소가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보고하고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군은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단순한 인구 유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책에 담기 위해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정책 설문조사를 한 달간 실시하고, 인구정책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굴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폭염·가뭄 장기화 대응 총력

진안군, 긴급대책회의 갖고 분야별 대응 상황 점검

진안군은 12일 오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 주재로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장수량 부족에 따른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폭염·가뭄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분야별 피해 상황과 예방 대책을 종합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진안군은 지난 10일 더위가 잠시 수그러들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상시대비단계로 하향하 있었지만 폭염TF팀과 가뭄 대비 TF팀을 중심으로 상황 관리와 현장 예찰 등을 강화하는 한편 읍면별 재난 대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폭염과 가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극심한 가뭄을 중점적으로 총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한 농업·생활용수 확보 대책과 폭염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강화와 아이 작업자 안전관



리, 농·축산 분야 피해 예방 등 전 부서의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군은 주민 안전과 농업 현장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읍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군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는 현장 대응을 추진하겠다”라며 “취약계층 보호와 농업·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등 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과정’ 운영

무주군이 지역 운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취업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

무주군은 무주군로컬JOB센터를 통해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농 상생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모집 인원은 모두 16명이다.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미취업 구직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무주군로컬JOB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교육비

72만2천원 가운데 62만2천원, 86.1%에 해당하는 교육비와 응시료를 지원받는다.

교육생은 교육비 10만원과 면허 발급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교육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학과 교육과 정내 기능 실습, 모의시험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며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지원한다.

무주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대형 운전면허 취득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운전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무주군의회, 의원·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12일 최북미술관에서 의원들과 직원들의 지방재정 및 결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총운영책연구소장을 초빙해 2026년 예산 및 2025년 결산 자료를 중심으로 무주군 예산과 기금의 현황 및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특히 실제 결산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과 재정분석 방법들

중심으로, 향후 예산·결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광석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더 전문화되고 있는 만큼 예산과 결산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재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의 소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진안·장수 함께하는 여름캠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무주, 진안, 장수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는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학습 캠프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지역 사회의 특색을 살린 학력 신장을 도모했다.

이번 캠프는 △문해력 향상 △학습코칭 △사회성 신장 △지존감 향상 △지역 특색 프로그램 등 총 5개 분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안 마이누리샘 일일, 무주 태권도원 일대, 장수 영재교육원에서 진행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28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전략 검사를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 코칭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였으며,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계노인복지관, 경로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계노인복지관(관장 정호영)은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북부권역 경로당 5개소에서 2026년 경로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세 대와 이웃을 잇는 절기마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전통 절기인 백중을 매개로 경로당 어르신 50명과 이주여성 5명, 장수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 대상자 5명 등 총 60여 명이 참여하는 문화교류프로그램이다. 전통 문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장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이 지역사회의 선배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세대와 계층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북부권역 경로당 5개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백중의 유래와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시작으로 전통문화 이야기 나눔, 세계 과일 화제 만들기, 여름맞이 체험활동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의 역사

전주매일 캠페인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키다

완주·진안 응치전투

완주·진안 응치전투(熊峙戰鬪)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경계인 응치(곰티재)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1592년, 일본군은 금산을 점령한 뒤 전주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김계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 해남현감 변응정 등이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응치에서 방어에 나섰다. 응치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정담 등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다. 전투 직후 일본군이 잠시 고개를 점령했으나, 이어진 안덕원 전투 등에서 조선군이 반격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금산으로 퇴각했다. 이 전투는 호남을 방어해 전주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된다. 현재 응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 총 23만2,329㎡(완주 13만3,000㎡, 진안 9만9,300㎡) 규모다.

**본 배경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